

‘나’의 역사, ‘우리들’의 역사: 이로카와 다이키치의 ‘자기역사(自分史)’론을 단서로

야스오카 겐이치 (오사카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

‘자기역사’라는 것을,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파악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일까? 본 발표에서는 1960년대 민중사상사라는 방법을 통해, 그때까지의 전후역사학 존재 양상을 되물었던 이로카와 다이키치(色川大吉, 1925-2021)가, 1970년대 제창한 ‘자기역사(自分史)’라는 방법을 단서로, 역사적 정체성 및 학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지역 주민의 생활을 기록하는 실천으로부터 이로카와가 추출해낸 ‘자기역사’라는 문제계(問題系, 역주: 복잡한 문제의 체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또한 그러한 문제 제기는 그 뒤 어떠한 전개를 보였던 것일까? 이는 이로카와 이외의 연구자나 시민이 지역사를 발굴하는 것과도 연결돼, 그 지점에서 전쟁 경험이 중요 주제가 되었다. 성인이 된 시민의 역사 실천에 있어서는 공민관 등을 현장으로 한 사회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현대 일본에서 ‘자기역사’라는 말은 출판 산업이나, 직업 교육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는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개인의 기억을 회고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역사학자가 그리는 역사와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기 쉬운, 개인이 역사를 상기하고 써 내려가는 행위에 대해, 현대사에서의 실태와 그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오늘날 전문가의 역할을 되새겨보는 소재로 삼고자 한다. 사람들의 ‘역사를 서술할 권리’를 표명한 유네스코 ‘학습권 선언’이 그 실마리가 될 것이다.

■ 야스오카 겐이치(安岡健一/YASUOKA Kenichi)

2004년 교토대 농학부 생물자원경제학과 졸업. 2006년 교토대 대학원 농학연구과 석사과정 졸업. 2009년 교토대 대학원 농학연구과 박사과정 지도인정 수료. 교토대 박사(농학). 현직은 오사카대 대학원 인문학연구과 준교수. 전문 분야는 일본근현대사, 구술사.

주요저작: 『「他者」たちの農業史』(‘타자’들의 농업사) 京都大学学術出版, 2014년.
「共に生きる「仲間」を目指して」(함께 사는 ‘동료’를 지향하며)
高谷幸編『多文化共生の実験室：大阪から考える』(다문화 공생의 실험실: 오사카로부터 생각하다) 青弓社, 2022년. 「聞き取り / オーラルヒストリー」(청취 조사 / 구술사) 岩城卓二ほか編『論点・日本史学』(논점·일본사학) ミネルヴァ書房, 2022년 8월.